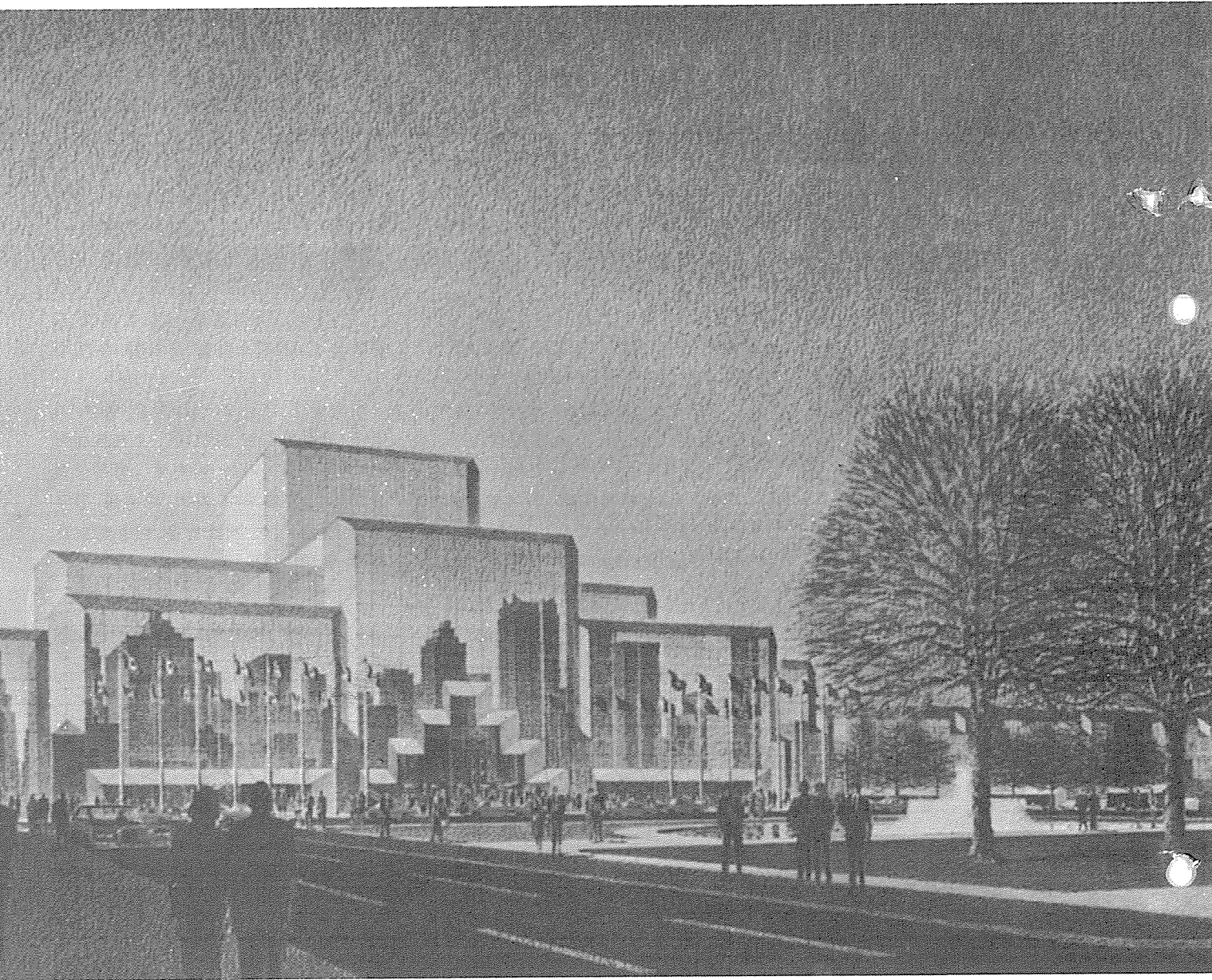


感傷紀行

金 錫 澈

건축연구소 아키반



빠리 83. 11. 17. 바스티유 오페라기 획단

사십 후반쯤 되었을까, 보라색 옆
줄이 짙게 열게 처진 상의, 검보라빛
치마, 회색스타킹에 은빛 구두를 신
었다. 열은 금발머리다. 눈밑 잔주름
은 지금처럼 저런 좋은 웃음을 오래
웃은 탓이기도 할 것이다. 바스티유
오페라의 기획 단계에서 설계 진행까
지 건립본부의 모든 책임이 이 여자
에게 지워져 있다. 처음 발상부터 시
간반에 걸쳐 설명을 들었다. 폐가갈

은 바스티유 거리의 5층 석조건물 2
층안에 새로 밝고 환한 집을 지었다.

여기가 건립본부다. 미테랑의 사회
당 정부가 들어서고 예술의 민중화작
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계층의 전유물
이 되어있는 오페라좌를 새로 만들고
자 해서 시작되었다.

발레가르니에로 불리우는 오페라좌
는 연간 최대 오페라 100회, 발레콘
서트 등 70회 정도만 공연이 가능하
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워낙 귀족
층의 호사와 열락을 위한 건축이어서

역사적 유적으로 남기고, 새로운 무
대 시스템과 관리방식의 도입에 의해
최소의 경비로 대중에게 오페라의 제
형식을 보여주고자 1년반 가까운 동
안 그러한 원칙적 제안에 따른 기술
검토가 시작되었다. 기획총괄인 오댕
(Audin) 아줌마와 건축도시 전문가,
무대전문가, 재정전문가 등 넷이서
두달 동안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두달 동안 관계 각 분야의 권위자
로 구성된 20인의 자문단과의 간단없
는 회의를 걸쳐 기본적 원칙과 세부

사항의 일거리를 정하고 곧 이어서 분야별로 조직된 15인의 작업요원과 함께 1년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해당분야 기타의 권위자들은 별도 용역을 주어 작업내용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일의 성격상 작업의 능률과 긴밀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므로, 과다한 인원의 경우 자연스럽게 야기될 기본 구상의 혼동을 피하고자 해서, 각 사람들에게는 과한 작업량이 주어졌으나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야간 작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오페라 하우스가 아직 실현된 적이 없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만으로 진행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경이적 외관에 비해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공연장이 된 것 등에 자극받아 실제 건축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본 골격을 세워가며 그 틀 속에서 각 공간선정과 이의 연관관계를 “공연형식의 조직화”와 “경제적 구성의 능률의 극대화”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 조정하였다. 대상이 된 세 부지를 놓고 기획명제와 새 오페라 하우스의 내용에 따른 검토끝에 바스티유 지역이 결정되었고, 이 길쭉한 부지에 가능한 몇 개의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속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특히, 무대 부분은 면적비가 객석 부분의 세배, 공사비는 객석 부분의 여덟배가 되고, 공연 횟수를 늘리려면 무대부분의 획기적 변화가 기본이므로, 무대 부분에 관한 한 거의 설계를 하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1년 반 가까운 기간동안 작성된 프로그램 시안을 가지고, 네 기획위원이 세계 각국의 주요 공연장 관리단과 일일이 면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조언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모두가 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국제현상으로 그 가능성을 물은 것이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고 삼개월에 걸친 국제현상 끝에 750여개의 작품이 들어왔다. 기획팀에 의해 2개월간 예비 심사를 하고, 다시 본 심사위원회에 넘겨 여섯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여섯 작품을 대통령에게 보여 그가 2주일만에 세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세 작품의 작가들을 불러 기획단과 세부 사항까지에 걸친 조정과 협의 후에 다시 1개월의 시간을 주고 2 단계안을 제출케 하였다. 지금 그 세 작품이 들어왔고 이제 미테랑이 그 중 하나를 고르는 중이다. 제출된 750여개의 모든 안과 1차 통과된 여섯, 2차의 셋 그리고 최종 당선작, 모두가 전시 준비 중에 있다. 대통령이 2차 심사와 최종 심사를 한다는 대목에서 당황하여 채차 물었으나 이 일을 발상하고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선정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는 답이다. 전문가들의 전횡과 직업적 이익집단화의 경향이 부쩍 심해진 우리의 경우를 상기하였다.

정부는 이유없이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고 전문가란 그 분야의 독점계급이라는 난데없는 최근의 작태는 잘보아 온 일이다.

전문가란 전문적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해당분야의 독점자가 아닌 것이다. 여기 바스티유의 이 전문가들은,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일을 훌륭히 집행해온 사람들 특유의 자신만만하면서도 자신의 직분을 잘아는, 과연 전문가다운 사람들이다. 지나치게 건축가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시종이었으나 750여개의 작품 모두가 이런 그들의 제안속에 갖가지 다양한 건축형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안심하였다고 한다.

런던 83. 11. 20. 리처드 요크
바비칸센터의 관리 책임자인 리처드 요크를 만났다. 건립과정의 연유

에서부터 지난 2년간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두시간여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젊은 사람이고 이 센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관심의 폭도 다양하고 설명내용도 진지하였다.

전부 160밀리언 파운드가 소요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고 70개월에 걸친 오리지날빌딩 프로그램의 여러 과정에 걸친 이야기들과 이 복합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구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고 받았다.

전체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어 보이지는 않고 미술관과 도서관은 위치선정에 따른 규모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방으로 연결된 도시의 흐름과 얽힌 극장군들은 정통적 감각이 많이 다쳐져 있어 극장 본래인 축제적 분위기가 흐트러져 보이는데 관리 운영측에서는 그런것 보다 숫자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을 한 스트라취에 집합시킨 최초의 예이므로 시설군의 조직과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하고 주 기능군인 바비칸홀과 세익스피어극장이 런던 필하모닉과 로얄세익스피어극단 소속이고 길드홀 예술학교도 별개 운영이므로 복합체라기 보다 장소 공동체적 아트센터여서 사우스뱅크보다 오히려 운영상 문제가 더 어려워 보였는데 예상 외로 컨벤션 부분이 활발하고 극장 콘서트홀이나 극장군의 시설이 훌륭하여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내용은 전혀 별개인 단체들에서 만들고 이를 홍보 관리운영하는 일만 다루고 있다. 소방관리조차 용역이므로 150인 정도의 인원으로 이 거대한 컴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헤이븐 83. 11. 20. 케빈로치
센트랄스테이션에서 기차를 타고 뉴헤이븐으로 갔다. 기차는 탄탄하게

생겼으나 차창이 뿌옇게 닳아 밖이 잘 보이지 않는다. 뉴욕의 지하철에 비해 뉴잉글랜드 행이어서 인지 비교적 깨끗하고 손님 관상들도 다 좋다.

맨하탄 지하철 속에서 양아치에 시비당할뻔 하던 불안은 없다. 뉴헤이븐 역은 그러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역앞 주차장에는 더러운 차들로 가득차 있다.

역에 내리면 케빈로치의 설계인 벽돌색 네 원통의 잘 알려진 컬럼버스타워와 철골보로 된 콜로세움과 무어의 아파트가 멀지 않은 곳에 바라보인다. 역 주위는 누구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자 하는 충동이 역력한, 그렇게 할 수 없이 가꾸어진 장소같다.

흑백의 인종적 편견이 이런 역사에 까지 스며 있어 보인다. 연락된 민선배가 차를 가지고 나왔다. 케빈의 사무실은 호수가 절묘한 자리의 옛 저택을 개수 증축하여 쓰고 있다. 샤리넨의 사무실을 이어받은 것이다. 처음 샤리넨의 건물들을 대하였을 때 비상한 재능에는 감탄하였으나 칸이 보여주는 바의 문학적 감동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최근 그의 건물들을 다시 대하면서 그러나 역시 가장 훌륭한 현대건축의 작가라고 생각되고 특히 그의 사무실 출신인 케빈로치나 시저펠리의 최근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하였다.

케빈로치의 작품은 성실한 사람의 과감한 생각의 전개가 주는 용기로운 성과들로서 오클랜드의 스텝가든 형식의 뮤지엄과 포드 재단본부는 70년대 현대건축의 한 빛나는 성과였다. 최근 커퍼레이션 빌딩에서 집단으로서의 커뮤니티 스트락취 구성에 몰두하는 듯하고 특히 집단내의 아트리움으로서 그리고 도시에서의 전진적 참여의 플라자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은 건축가의 도덕적 성실성을 보는 듯하여 이번 작업에 초대기로 한 것이었고 덴버시의 복합예술센터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었다. 민선배의 안

내로 들러본 사무실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움직이는 조용하고 힘이 있는 설계사무실의 인상이었다.

대부분 모형으로 스타디하고 있어 모형제작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설계실 옆 큰 방에는 거대한 모형실이 붙어 있다.

빠리의 어느 회사 본사사옥은 샤이요구를 전후로 엇물린 듯한 현상인데 로치특유의 코너 아티클레이션이 화려하게 장치되고 오클랜드식의 인공토지 개념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휴스톤에 역시 모회사 본사사옥을 거창한 스케일의 모형으로 스타디 중인 데 유엔시티 호텔과 같이 고층 타워의 절단 변형의 두 괴체가 서로 엇갈리고 그 사이에 아트리움이 걸리는 최근 건축가들이 즐겨 시도하는, 이제 진부하기까지한 건축 형식이었으나, 로치특유의 테크닉에 의해 유엔센터시티보다 많이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케빈로치를 만났다.

조용하고 맑은, 성실하게 생긴 사람이다. 복합예술 센터의 경우 주최측과 건축가의 시종일관된 협의가 필요한데 거리와 언어의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제시한 하드스케들은 자기로서는 무리이어서 초청은 고맙지만 어렵겠다고 완곡히 거절한다. 당연한 거절이라고 생각한다.

마스터플랜 단계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받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려 하더라도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단계에서의 개화가 더 중요할 것이고 남의 머리를 빌리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반예술적이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하면서도 계면적이다. 마침 김태수씨가 와 적당한 선에서 서로 체면치레를 하고 헤어졌다. 입장이 바뀌는 날이 오기는 와야할 것이다.

뉴욕 83. 11. 22. 잉거프리드
아이 엠 페이 사무소의 파트너인

잉거프리드를 만났다. 600 메디슨 에비뉴의 이층 전부를 쓰고 있는 그의 사무실은 필립존슨의 사무실과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흑인 리셉션 우먼이 앉아 있는 전실이 있고 비서실군이 있고 면담실이 이어진다.

잉거프리드의 방은 작업실을 겸하고 있는듯, 한창 진행 중인 뉴욕 컨벤션센터의 모형과 도면이 여기저기 보이고 간간한 그의 현대미술 수집품이 보이는 외에 정갈한 방이다. 사방 일곱자쯤 될 정방형 테이블이 그의 작업대이고 응접대인 모양이다.

뉴욕 컨벤션센터는 삼년 전 처음 잡지에 소개되었을 때부터 유명해진, 이종류로는 세계 최대의 구조물이다. 예술의 전당과 거의 같은 규모인 22에이커의 대지 위에 2만5천평 정도의 전시 공간을 포함하여 가장 큰 홀인 윗층 레벨은 만3천평 정도의 연속된 주공간을 가지고 있다. 만화스럽지만 높이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길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길어서 열네 축구팀이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도 수퍼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니 가히 미국적 스케일이라 할 수 있다. 노출 스페이스프레임과 유리크리스탈로 구성된 구조체는 낮에는 도시를 반사하고 밤에는 안에서 레이저 광선과 스포트라이트로 번쩍이게 되어 있다.

다섯블럭을 가로지르는 만삼천평의 주공간을 일일이 보자면 5마일 정도 걸게 되어 있다. 다섯개층이 트여 있는 2천여평의 대입구홀은 747여객기가 둘 들어갈 정도의 크기다. 각 주홀은 셋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 여섯개의 독립된 홀을 이루게 되어 있다. 35명에서 3,800명을 수용하는 갖가지 규모의 6개국어로 다른 지역까지 동시통역이 되는 100개의 컨벤션 및 미팅홀이 있고, 동시에 25,000명의 식사를 공급하게 되어 있다. 가장 장관인 것은 주전시홀 상부에 상점과 영화와 레스토랑과 극장티켓 센터가

있는 퍼블릭갤러리스페이스일 것이다.

85년 말이나 86년에 완공되면 아마 가장 큰 뉴욕의 명물이 될 이 건물을 주관하고 있는 잉거프리드와 우리 일을 놓고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뉴욕 컨벤션센터는 미국의 새로운 부가를 의도한 보수주의자들의 열망이 담긴, 비유적으로는 슈퍼의 뉴른베르그 전당 대회의장 같은 위광암시와 집단적 자기 확인인 사회통합의 한 전형적 예인것 같다. 아이 엠 페이 사무실의 주요 작품들이 건물의 실용적 용도에서 나아가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이 그들이 오늘의 미국건축을 주도하게 된 원인같아 보인다. 워싱턴의 이스트윙에서는 자본의 자선을 보여 주더니 여기 컨벤션센터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의 자금을 과시한다.

루이칸의 문화적 개안이나 로버트 벤추리의 역사성의 인식 대신 아이 엠 페이는 자본과 권력 혹은 행정의 파워를 건축언어로 표현하는 데 대단한 일가를 이룬 것이다.

하나의 주공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방에서의 변조를 기조로 하는 그들의 시도는 오늘날 자본이 가진 속성에 가장 접근되어 있다.

자본은 그들을 위한 성체의 안보를 위해 지식을 창출하고 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의 영주들이 사병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듯이 그들은 지식인을 고용하고 조직을 정비한다. 노동-생산의 단순관계를 복합적인 사회조직으로 만들고 법과 제도 등 각종 장치를 통해 생산의 배분을 주도한다.

자본제국적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이를 건축언어로 표현해 낸 이로 샤리넨과 그의 제자들, 아이 엠 페이와 그의 부대들이 자본가 출신인 필립존슨과 더불어 미국 건축계를 주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모

자본의 앞선이가 되어 있는 지식인이 그렇듯이 정작 당면한 잉거프리드는 자본에 흡사되어 있는 암전한 지

식인에 불과해 보인다.

수전증이 있는지 손을 달달 떨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의 화려한 기회를 과시한다. 「회사 방침으로 현상은 하지 않는다. 현상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쇼를 해야 하는데 지친다. 현상이 끝나면 일상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고 조직을 부분적으로 훼손시킨다.

서울 프로젝트는 환상적인 것이므로 직접 맡겨준다면 해보겠다. 프랑스 정부도 우리에게 국가적 일을 맡기고 있는데 우리 스케들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의 스케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스케들이다.」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다. 케빈로치에게서도 느낀 것처럼 이런 말간 사람들의 시대가 되었다.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진 인간, 배반하고 좌절하고 고뇌하는 인간은 이제 예술가의 자리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서로 편한, 대조직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의 천재는 이제 정신질환을 앓는 시대착오적 과대 망상증의 소인에 불과하였다.

잉거프리드의 정중한 거절을 당한, 같은 직종의 사나이로서 쓸쓸한 감개가 많다. 별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만들고 있으면서 대중적 열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듯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나보다. 자본과 재능의 산술이 현대에서 갖는 인격들의 드라마를 보는 감개가 있다.

뉴욕 83. 11. 24. 필립 존슨

시그람 37층 그의 사무실에서 필립존슨을 만났다. 말갭게 장치된 방에 그와 마주 앉았다. 벽판화가 좋다. 유리 속의 약간 파격인 나선의 빛깔 좋은 나이트가 두텁게 패이며 엉키어 있다. 사진에서 익히 본 풍모가 약여하다.

순간적 유머와 기지의 밝은 빛깔을 그의 말에서 본다. 77세인 약간 과대망상의 느낌을 주는 이 당대의 대가는

그러나 아직 소년같은 맑음이 있다. 잘 살아서 역사와 세상의 많은 연유를 잘 아는 유식하고 예지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사는 일의 치열한 가락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듯한 약간 딜레단트한 작가 특유의 미소로움이 있다. 초기의 미스 반 데르존슨에서 최초의 변모에 이르는 그의 작가로서의 변신은 역사를 이해하고 도시의 사연을 아는 그의 독보적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 AT&T에서 보듯 예술가로서의 에스쁘리에 보다는 화려한 지식인으로서의 예술 애호가적 작의를 느끼게 한다. 우리 일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의 나이와 서울과의 거리를 이유로 우선 파트너인 버기와 상의하고 가부를 알려주겠다 한다. 어제 그의 뉴욕 주립극장과 핏셔홀을 보고 “아이고 안되겠구나” 하였는데 거절 비슷한 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다행스럽다.

현학적인 그의 취향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멀뚱한 건물을 만든 것은 밤이되면 어떨니 하는 추기시대 불구하고 실망이 컸다.

최근의 그의 가장 큰 야심작이고 술하게 여러 사람들의 화제에 올랐던 A T&T 건물을 다시 보았다. 5년 전 스킷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짓지도 않은 건물이 타임지커버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의 의도는 아마도 초기 마천루의 환타지와 역사적 공공건물의 퍼블리시티를 복합하고자 한 것 같다. 페디먼트인 치펜데일과 60피트나 되는 로만풍의 크로스볼트의 저층부 사이의 따뜻한 연분홍 화강석 샤프트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절충적 양식의 건물이다.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이것저것을 좋은 감수성과 지혜로 모아 한 건물을 만들었다. 어둡고 긴 매디슨에비뉴와 휩스에비뉴의 56.7스트리트 사이에 60피트 높이의 로만아케이드와 후면 볼트천장이 주는 의고전적풍상은 바로 옆

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라라비반즈의 43층 IBM사와 6개홀의 초호화 쇼핑 아트리움과 몰 그리고 13개층의 오피스 위에 백만불짜리 콘도미니움으로 이루어진 스웱크-하이든-코넬의 트램프 타워와 더불어 맨하탄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

고전적인 맨하탄의 절두형 고층 타일군과 미스 이후의 글라스타워 그리고 최근의 미러글라스 혹은 미러-스톤타워들의 범람 사이에 과연 존슨답게 과거의 한 유적을 하늘위에 땅위에 세웠다. 중간 샤프트는 맨하탄 특유의 고층건물 거의 그대로이다.

마치 치편테일은 맨하탄 위를 떠다니는 듯하고 저층 콜로네이드는 땅에 박혀 있는 듯하다. 맨하탄의 과거와 그것의 배경이 되었던 문명의 궤적이 역사의 현장 속에 재현되어 있는 듯하다. 휴스턴의 우아한 175의 건물 이후에 그가 가장 힘을 들인 작품인데 많은 건축적 논란이 필요한 집이다. 이런 형식의 시도는 오히려 링컨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있어야 했을 것이다. 엉거주춤한 링컨센터에 비해 건축의 한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구한 전형의 한 예로 보아 좋은 것이다.

마침 그의 사무실 응접대기실에 타원형의 역시 최고층인 오피스빌딩 모형이 보이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세트백된 형상을 취하고 있다.

그가 최근에 한 거의가 다 이만평이 넘는 열가까운 고층타워를 보여준다. 아직 완공되지않고 지금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것들 만인데 여러 잡지에서 본 PPG 플라스타워와 본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 외는 다 같은 건물이라도 될 오피스 빌딩들인데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처음보는 건축의 형상을 시도하고자 한 작의가 역력하다.

바로 그의 스승인 미스가 “건축가는 월요일마다 새로운 모드를 만드는 자가 아니다” 하였는데 이 한도 없는 다양성의 추구가 그러나 신기해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창적이 되지는 않는다. 건축가의 상상력이란 과거와의 짙은 연계성 혹은 명제의 풍부한 전개, 입지의 새로운 해석 등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형태의 유희에 있는 것이 아닌데 자그마한 유식하고 돈 많고 재미 있는 노인의 이 장난스러운 기교들은 그의 열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루이 칸이나 샤로운의 작품이 보이는 문명과 문화에 대한 어떤 언명,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깊은 애정이 보이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아름다움 대신 그의 작품은 기지와 해학의 깊이는 있으나 사건의 깊은 내용은 별로 잘 개진되지 못한 건물들이다.

뉴욕 83. 11. 25.

주저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새벽에 잠시 눈발이 날리다가 비가 오더니 낮이 되면서 푸른 하늘이 선명하다. 체념의 닷을 내리고 영원으로 가는 여정의 무개열차를 타고 시간의 레일위를 한도없이 가는 어느 역사의 어스름같은 해후였다. 차분하게 아무

말도 없이 슬픈 눈빛이 이제 잔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웃는다. 이렇게 해서 지난날들은 또 다른 생각의 높이로 가는 것일까. 그 술한 설레임과 주저와 환희의 날들 뒤의 이 적막한 해후는 무엇일까. 꼭 닳은 아이사진을 보기도 하고 지난 사람들 안부를 묻기도 하는 일 말고 이제 무슨 화제일것도 없어져 있는 두 사람의 만남 같은 것은 무슨 일이고 무슨 연유들인가. 유희의 계절 뒤의 앙금같은 이 미묘한 허망의 느낌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사라지는 것들인지, 맨하탄은 번번히 식물적 삶이 되어 있는 지난날나의 구기적을 상기케 한다.

굿바이, 감동적인 인사도 없이 내일 또 만나게 될 사람에게 처럼 덤덤하기 짝이 없이 잘가,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서로 아메리카에비뉴42번가 네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다. 자칫 영원히 못볼 수도 있다. 얼마나 짙은 사연을 겹치었는데 빛바랜 수채화 같이 이렇게 아무 느낌도 없이 피곤하다는 느낌만으로 멀경계 인파 속으로 습지같이 헤어져간다. 흑백의 번잡한 인파속으로 출렁거리는 미세 택시의 높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 간다.

지난날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초라해 보이는 안색 위에 약간 짙어 보이는 푸른 눈가의 빛깔과 짙은 선홍색 루즈가 거부하는 몸짓을 한다. 어느 사이에 이런 큰 강을 만들고 있었는지. 세월의 물결 뒤에서 멀리 아지랑이 같이 보이는 반쯤 눈이 가려진 저 빛발들은 또 무슨 사연들일까.

수출위한 당신피땀 외래품에 낭비말자